

# 종교와 어린이

이 신 건 (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현: 聖潔神學研究所長)

## 1. 들어가는 말

인간사랑, 인간해방 혹은 인간구원을 외치고 실현하는 종교 안에서 어린이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는가? 종교는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또 그를 얼마나 해방하고 있는가? 단순히 현상적으로만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어른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 혹은 그들이 가르친 헌신의 대상에 대한 표상(表象) 혹은 이미지는 어른, 그것도 대개 남자 어른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다. 부처가 어린이에게 얼마나 자주 설법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오늘 날 우리는 불교의 대웅전(大雄殿)에서 그야말로 웅장하게 앉아 있는 남자 어른인 부처를 본다. 나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 오랜 고행을 한 부처가 왜 깡마른 구도자(求道者)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고, 통통하게 살찐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를 잘 모른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대자대비(大慈大悲)한 어머니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성인(成人) 남성이다. 가끔 수많은 동자승(童子僧)들이 어른 부처 주위를 뻑뻑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심에는 남성 어른 부처가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부처는 남자이고, 더욱이 어른이라야만 하는가? 이것은 원래의 부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인가?

기독교에서는 어떠한가? 분명히 기독교는 어린이에 대해 불교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기독교적 어린이 프로그램이 불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외형적인 사소한 차이를 빼면, 기독교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어린이는 여전히 교회에서도 주변적인 집단들이고, 어린이 기관은 교회의 부속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지다. 예수 혹은 하나님을 어린이로 연상하기란 어렵다. 그는 어디까지나 힘있는 남성 어른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는 주로 남성 제자들만을 거느린 것으로 나타나고, 주로 어른에게 가르치는 모습으로만 그려져 있다. 오늘 날에 와서는 여성신학(女性神學)이 예수와 하나님 혹은 성령의 모성적-여성적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하려고 애쓰지만, 어머니도 어른인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예수의 정신과 이미지와 일치하는가?

간단히 줄여 말하면, 오늘 날에 어린이는 사회에서만 아니라 종교의 이념과 그 실천 안에서도 소외받고 있으며, 때로는 심하게 박대, 학대를 받는 불쌍한 존재이다. 학문과 종교의 체계가 제 아무리 숭고하고 그 역사와 전통이 제 아무리 유구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인간사랑에 기초하고 또 그것을 추구할 때만 그 자신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종교는 그 무엇보다도 고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했고, 또 지금도 그리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 사랑은 관념적,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당하는 사람과의 연대감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 날 세계에서 가장 고난당하는 인간 생명인 어린이로부터 인간사랑, 인간해방을 다시 생각해 보고, 그래서 종교이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종교와 어린이

비록 종교의 창시자가 모두 남자 어른이었다고 하더라도, 종교의 가르침과 실천까지도 어른, 특히 남자 어른에게 더 적합한 것인가? 그래서 종교의 주도권, 즉 전통해석의 권리와 종교단체의 운영 등도 당연히 그에게 돌아갈 몫이어야 하는가? 비록 -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 종교의 창시자가 대개가 남자 어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르침과 실천에서 종교의 본질은 남자 어른이나 여자 어른도 아닌, 성을 초월하여 어린이에게 더 적합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종교적 표상(表象) 혹은 이미지도 어린이 이미지와 가장 유사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바로 이점을 나는 간단하게나마 두 가지 차원에서 규명해 보려고 한다.

## 1) 인지적(認知的) 차원

에드워드 타일러(Edward Tylor)가 주장하였듯이, 인간의 사고 가운데 누가 보아도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에는 애니미즘(Animism)이 깔려 있다. 여기서 애니미즘이란 인간과 세계가 특수하고 비신체적이며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믿음이다. 그 존재들은 영혼, 유령, 성인, 요정, 천사, 악마, 신 등이다. 그러한 대상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존재를 믿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종교가 존재한다.

가장 애매한 경우는 불교인데, 학자들은 불교를 가리켜 신이나 영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세계 종교라고 말한다. 그러나 불교 사원 바깥의 보통 신자들은 부처의 가르침에 담긴 무신론적 의미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류 불교의 경우 심지어 사원 내에서도 부처를 최고의 신으로 재빨리 형상화했다. 그 신은 다시 육화(肉化)하는 데 성공했고, 하위의 신과 악마들에 대한 지배력을 가졌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몇 가지 다양한 불교가 인도에서 티벳,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으로 퍼져 나간 것도 하나의 완전한 애니미즘적 신앙으로서의 불교였다.

애니미즘이 그렇게 보편적인 까닭은 무엇인가? 타일러는 추론하기를, 만일 하나의 신앙이 사실상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되풀이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환상의 산물일 수는 없다고 한다. 그것은 어떤 증거에, 그리고 역시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체험에 근거를 두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 체험이란 무엇인가? 타일러는 꿈, 황홀경, 환상, 그림자, 반사되는 영상, 그리고 죽음을 지적했다. 인류는 적어도 3만 5천 년 동안 애니미즘적 존재를 믿어 왔다.<sup>1)</sup>

어린이는 자기가 지각하고 상상하고 꿈꾼 것들을 모두 실재하는 것으로 믿는다. 어린이는 의인론적(擬人論的)으로, 즉 애니미즘적으로 사고한다. 어린이는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엄밀하게 분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두고 사람들은 어린이가 천진난만하다거나 유치하다고 평가해 왔다. 성인 중심주의적인 발달 심리학에서 볼 때, 어린이의 사고는 계몽되지 않은 비합리적, 주관적, 공상적인 것, 원시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면에서 어린이의 사유를 평가절하해 왔던 피아제(J. Piaget)도 예외가 아니었다. 피아

1) 마빈 해리스, 김찬호 역, 작은 인간, 민음사, 1996, 370-371, 428.

제는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이러한 관념을 ‘애니미즘’으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생각을 ‘마술적 사고’라고 불렀다.

이러한 태도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 데카르트에 의한 정신과 물질의 분리, 뉴턴 이래의 기계적 우주관의 승리 등으로 인한 유물론적, 합리론적 세계해석의 승리 때문에 세계는 탈신격화되었고(Schiller), 탈마술화되었다(Weber). 이로 인하여 인류의 정신은 황폐하게 되었고, 자연은 무자비하게 착취당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애니미즘적 기초를 갖는 종교와 신화는 여전히 매우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어린이나 미성숙자의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에 이르러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이해는 절대로 타당한 것인가? 어린이의 사유 혹은 신화적 사유는 비(非)논리적이거나 전(前)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격의 논리를 지닌 것은 아닐까? 오히려 신화적 이해는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오늘 날에 기계론적 세계이해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되었다. 오늘의 과학은 기계론적 자연관으로부터 떠나서 자연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기 시작했다. 자연은 창조성으로 가득한, 성장하는 유기체로 여겨지기 시작했으며, 온 우주는 살아 있는 에너지 원리(靈)로 가득한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관점 하에서라면, 어린이의 사유는 어른의 사유보다 현실에 더 적합한 것, 합리적인 것으로 재평가된다.

예수는 일찍부터 어린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왔다.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려와 예수의 안수를 요청했을 때, 제자들은 이를 저지하고 나무라기까지 하였다(마 19:13, 막 10:13, 눅 18:15). 전통적으로 어린이는 귀머거리, 백치처럼 취급받았다.<sup>3)</sup> 예수는 말씀과 행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린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어린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행동을 꾸짖고, 어린이를 어른의 ‘한복판에’ 세운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린이를 ‘중심위치’에 세운다. 변두리에서 복판으로, 아니 어른의 주변에서 어른의 중심으로 위치를 뒤바꾼다. 예수가 어린이를 “껴안았다”는 것은 용납, 신뢰의 경험,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고 전달한다.

2) 한스 루드비히 프리제, 이재영 옮김, 아이들은 철학자다. 숲, 1992, 101이하 참조.

3) J. Jeremias, Neutestamentliche Theologie. Teil 1. Die Verkündigung Jesu, Gerd Mohn 1979, 218f.

왜 어린이는 이런 대접을 받는가? 많은 신학자들은 어린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자질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어린이가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린이의 순수함, 순진함, 통일성, 심원성(深遠性) 등은 공적이나 사랑을 넘어서게 할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인위적인 사고와 실천의 틀이나 사회적-종교적 법률체계의 장벽을 넘어서게 한다. 그리고 어린이의 세계는 온통 무한한 경이로 가득 차 있다. 어린이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외부세계에 대한 경외감을 간직한 채, 이 세계의 비밀을 무한히 자신 안으로 흡수하고 있으며, 이 세계에 대하여 무한히 열려 있다. 그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 경이감으로 충만하다. 예수가 어린이를 옹호한 것도 바로 어른들의 고착되고 경직된 사고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도 있다.<sup>4)</sup>

“하늘과 땅의 주재가 되시는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 보이시니 찬양합니다”(마 11:25, 눅 10:21)라는 예수의 말도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영리한 자들과 지식인들은 문자로써 자신의 가슴을 동여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지만, 어린이들과 어린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sup>5)</sup> 더욱이 예수는 어린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우주의 기적을 깨달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여,<sup>6)</sup> 하나님이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마 21:16)고 말한다.

불교에서는 어린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달이 덜 된 상태의 미성숙하다는 개념이 불교에서는 아직 완성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현대의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어서, 매우 넓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 미성숙하다는 개념은 발달적인 차원이 아닌, 깨달음에 입각하여 이를 성취하지 못한 인간을 의미한다. 이처럼 불교에서 어린이는 발달단계에 따라 구분된다기보다는 인간의 본질적인 면에 초점을 둔 인간관에 파악되는 존재이다. 불교에서의 아동개념이 발달상의 구분과는 개념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4) J. Gniska, 마르코복음(II), 한국신학연구소 1991, 113.

5) F. Alt, 김윤옥, 손규태 옮김, 현대인을 위한 예수전, 새겨레 1991, 119.

6) 시편 8:1-2/여호와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세우심이여.

부처의 가르침은 인간 일반의 본질과 현실에 대해서는 대단히 논리정연한 면을 보여 주고 있지만, 어린이의 발달적 특수성이나 본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명하고 있지 않다. 불교 자체의 교리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인간은 남녀와 노소 및 신분 등의 구별 없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고, 부처는 그 깨달음을 가르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므로, 부처 자신에게는 굳이 연령이 어리다 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원시교단에서는 원래 출가하여 비구가 되는 자격에 있어서 나이에 따라 차별이 없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해 성숙자인 어른이나 미성숙자인 아동이나 모두 비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것은 어린이도 본질적으로 어른과 마찬가지로 불법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인간관의 반영이며, 아동의 청정한 성품을 인격적으로 신뢰한 결과라고 본다.

‘함아자아경’의 ‘세기경’에는 중생의 선업(善業)이 많아지고 수행이 경지에 도달하면, 다음 생에 아동의 순수한 심성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내용이 있다. 아동의 순수한 심성이나 형상이야말로 중생이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선한 인간의 모습임을 상기시키는 내용이다. 부처는 원래 아동을 그 근본에서 어른과 다른 존재로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7)</sup>

원시불교의 최초의 아동관이 일면 낭만적인 아동관을 보여 주었다는 점을 지적한다면, 대승불교에서는 아동이 불법의 구도자, 즉 보살로 표상되고 심지어는 아동의 순수성은 어른도 본받아야 한다는, 다분히 아동을 신성시하는 모습도 있다. 이러한 점은 연기론에서 대승불교사상의 최고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화엄경’의 ‘입법계품’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선재동자가 대승보살의 구도적 실천자의 대표적 상징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보적경’과 ‘법화경’에는 동녀들이 대승보살행자로 묘사되고 있음도 주목을 끈다.

‘대보적경’ 98권에는 8세의 묘혜동녀(妙慧童女)가 부처님으로부터 대승보살의 10가지 행법(行法)을 듣고 그 수행을 발원하여 대승법을 설교하였다고 한다. 또 같은 경 111권에는 파사의 왕의 어린 딸 정신동녀(淨信童女)가 선의 근본을 심고 대승법을 성취하였음을 인정받아 성불(成佛)을 수기(授記)하였다고 한다.

7) 黃玉子 저, 불교아동교육론, 불교시대사, 1994, 23.

특히 ‘범화경’의 ‘방편품’에는 아동들이 장난으로 모래를 쌓아 불탑을 만들거나 또는 나뭇가지나 손가락으로 불상으로 그려도 그 공덕으로 성불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같은 ‘범화경’의 ‘보문품’에는 동자나 동녀를 위해 관세음보살이 동자나 동녀의 모습으로 나타나 설교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대열반경’에는 보살이 닦아야 할 오행(五行: 聖行, 梵行, 天行, 嬰兒行, 病行) 가운데 영아행(嬰兒行)이 나오는데, 영아행은 자비심으로 나타나는 선한 행동을 말한다. 즉 보살이 지녀야 할 행동은 어린이와 같은 깨끗하고 거짓 없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밀교의 중심 경전인 ‘대일경’에서도 영동심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대일경’을 보면, 해탈을 구하는 중생이 선심(善心)을 지속시켜 점차 완성해 가는 과정을 8단계로 표현하고 있는 바, 맨 마지막 단계를 ‘영동심’으로 하고 있다. 즉 어린이는 그 마음에 잡념이 없이 신앙에 의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순수한 존재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sup>8)</sup>

불교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아동은 성인과 동일하게 불성을 지니고 있어서 성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현상적으로는 아동은 아집이 없는 순수한 마음 상태 때문에 깨달을 수 있으나, 성인은 외계의 사물을 실체라고 인식하기 쉬운 성격, 즉 실아(實我)로서 집착하기 쉬운 성질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sup>9)</sup>

맹자도 일찍이 “大人者不失其赤子之心者也”(큰 사람은 갓난애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갓난애의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하며 진실하다. 진실하면 진리로 통한다.<sup>10)</sup>

## 2) 정서(情緒), 행동적(行動的) 차원

종교는 단지 심원한 인식만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종교는 단지 순수하고 깨끗한 생각이나 의인론적, 애니미즘적으로 통일된 일원론적 사고, 세계나 영혼 혹은 신에 대한 단순하고도 심원한 인식만을 요구하지 않

8) 같은 책, 27ff.

9) 尹惠珍, 불교의 아동 자아관, 한국불교학 제17집, 1992, 166.

10) 윤재근, 뜻이 크다면 한칸의 방도 넓다. 사람과 삶의 대화 들깨편, 디자인 하우스, 1995, 74.

는다. 종교는 또한 정서와 실천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종교는 그 어떤 것보다 전인적인 신뢰,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서 혹은 실천의 차원에서 종교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는 바로 자비심 혹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어른에 비해 어린이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민감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어린이는 모든 면에서 어른들보다 더 수용적이다. 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타자를 수용함으로써 성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타자를 수용한다. 어른이 될수록, 인간은 모든 면에서 점점 덜 수용적이 되어 가고, 그래서 점점 더 안정적이고 규범적인 인간, 배타적인 인간이 되어 간다. 그래서 그는 남에 대하여 고착된 이미지를 만들기가 점점 더 쉬워지고, 그래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도 민감해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는 인간성(Humanity)보다는 제도와 규범, 이해관계와 가치판단 등에 의해 더 많은 지배를 받는다.

예수 시대의 어른들, 종교인들도 그러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강도를 만나 피흘리며 죽어 가는 이웃을 외면하고 도망간 비유 이야기(눅 10:25-37)는 이를 잘 예증한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가 말하려는 의도(비유의 초점)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칠일 간 부정하게 된다”(민수기 19장)는 종교규율 때문에 오히려 남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할 수도 있는 인간의 한 전형을 본다.

예수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하지만 그는 종교보다는 인간을, 율법보다는 고통당하는 인간을 더 위하였다. 안식일 논쟁이 이를 보여준다.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남의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먹자, 바리새인은 안식일 규정을 들며 예수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는 다윗이 제사장 음식을 먹은 예를 들어 제자들의 행동을 옹호한 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막 2:27)고 말한다.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를 엿보며 고발하려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막 3:4)고 반문한 후, 병자를 고쳐 주었다. 예수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頑惡)함을 나무란다. 즉 종교규범에 얽매어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친 자비행위를 비난하는 그들의 심사는 완고할 뿐만 아니라 악하기 조차하다.

이처럼 규범적인 인간, 성인(成人)은 그 규범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그에게는 인간의 고통보다 규범, 자신의 이해관계, 가치판단이 더 앞선다. 그러나 예수는 모든 규범 중의 진정한 규범, 아니 모든 규범보다 앞서는 절대규범, 이웃사랑을 먼저 내세운다. 특히 고통당하는 이웃에게는 가장 엄격한 종교규범마저도 여지없이 무너진다. 오로지 고통당하는 인간만을 가장 중요시하는 예수의 태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산상설교'에서 가르친 '자비'(마 5:7), 측은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만큼 조건없이 아픈 동료 피조물을 아파하는 피조물이 지상에 어디 있는가? 어린이는 아직까지 규범과 제도, 이해관계와 가치판단에 낯설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이 유연하고 개방적이라는 이유, 아니 마음이 민감하고 따뜻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른들보다 훨씬 더 이웃의 고통을 쉽게 체득한다.

어린이가 어른보다 훨씬 더 인간의 곤궁(困窮)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하나의 성서적 실례는 이른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고픈 군중을 먹인 이야기'다. 예수는 어느 날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마 14:14, 막 6:34) 병을 고치고 가르쳤다. 날이 저물어 무리들이 허기를 느끼게 되자, 무리 중에서 어린이가 제공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덕분에 기적적으로 모든 무리들이 넘치도록 배불리 먹게 되었다. 산술적 계산을 초월한 한 어린 아이의 자비심 때문에 급식 기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복을 빌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면서 절대적인 사랑을 가르쳤고, 부처도 "꾸짖음, 결박, 매질을 착한 마음과 용서로써 견디라. 원한을 품을 만한 자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폭행하는 자를 용서와 평화로써 대하면, 나는 그를 청정인(淸淨人)이라 부르노라"면서 자비회사(慈悲喜捨)의 마음을 가르쳤다. 대승불교에서도 어린이는 이상적인 인간상인 보살로 표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는 자아완성과 중생구제의 생활, 즉 자리아타행(自利利他行)을 항상 실천함으로써 끊임없이 이상향을 전진하고 있는 이상적 구도자로서 표상되고 있다.<sup>11)</sup>

그런데 최근의 한국상황에서 판단하면, 어른들은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를 보고도 온갖 이유를 둘러대며 지원을 회피하였던 반면, 어린이들은 훨씬 더 유연하고도 동정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어린이들이 북한의 만행을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북한 사람들

11) 黄玉子 저, 앞의 책, 25.

에 대해 원수나 심지어는 악마의 이미지를 주입받았던 어린이들이 중요감을 쉽게 잊거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린이의 감성, 즉 과거를 불문하고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동정심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는 화도 잘 내지만, 분노감을 오래 지니지도 않으며, 또 복수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그 반면에 어른은 화는 잘 참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분노감을 오래 가슴에 품으며, 또 복수하기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종교의 본질도 어린이가 어른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또 이를 쉽게 실천한다고 볼 수 있다.

### 3. 종교와 어린이 이미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 어른보다 어린이가 훨씬 더 종교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실제 면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으리라. 그렇다면 참된 예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 참 구도자, 참 보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어린이의 이미지가 종교의 창시자나 종교적 헌신의 대상(하나님, 부처)에게 얼마나 투영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역사의 예수와 부처는 어린이와 같았는가? 온 우주 안에 총만해 있는 영원한 하나님과 부처는 어린이의 얼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가? 만약 예수와 부처가 말로만 가르친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준 자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진정 어린이와 같았으리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지면과 지식의 한계 때문에 기독교 신학, 특히 현대 신학에 국한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신학계에서 그 어떤 신학자보다 더 분명히 어린이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자는 몰트만(J. Moltmann)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시대의 고난의 첫 희생물은 누구인가? 그것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다. 이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세력을 얻기 위한 투쟁 속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난을 당하며,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로서 희생되며, 어린이들이 죽음을 당한다. 부를 위한 투쟁 속에서 사람들은 힘이 약한 동료 피조물들을 파괴한다. 이리하여 먼저 자연이 말없는 죽음을 당하며, 그 다음에 인간의 종이 죽음을 당한다... 경제

와 정치적 체계모니 속에 숨어 있는 인간의 불의의 체계들로 말미암아 매년 수백만 명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며, 무엇보다 먼저 제3세계의 어린이들의 생명이 희생된다... 이들은 사람의 아들, 세계심판자의 가장 작은 형제와 자매이다(마 25).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귄 속에 속한다면, 그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기도 하다.<sup>12)</sup>

만약 어린이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기도 하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와 어린이를 동일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고난받는 어린이와 동일시한 것에 힘입어, 우리는 고난받는 어린이들 중에서 '고난받는 어린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그리고 몰트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에게서 '어린이를 향한 당파성'을 분명히 본다.

예수는 가난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 가난한 자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었다. 어린이들에게도 사정은 마찬가지니,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린이들의 것"임을 선포했다(마 19:14).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함을 그들에게서 발견했다... 우리로부터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자는 다시금 가난한 자들, 여자들과 아이들과의 사귄에서 똑같은 그 나라를 발견한다. 하나님에게서는 이런 꼴찌가 첫째이며, 이런 가장 약한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이다. 누구에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져온 자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과 어린이들도 가까이 데려 왔다. 이들은 그의 가족이요 그의 백성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기 때문이다.<sup>13)</sup>

그리고 몰트만은 예수의 아빠(Abba) 기도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이(Kind)<sup>14)</sup>로 경험한 예수를 본다. 이 경험은 분명히 예수의 자기이해를 형

12) J. Moltmann, 김균진, 김명용 역, 예수 그리스도의 길, 대한기독교서회 1990, 229.

13) J. Moltmann, 이신건 옮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대한기독교서회 1997, 28-29.

14) 독일어 'Kind'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린이'라는 단어보다는 '자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한국어 번역에서도 '자녀'라는 단어가 선택되었다. '자

성한다고 그는 말한다.

아빠 -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의 '어린이'(Kind)로 경험한다. 만일 우리가 이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로 나타낸다면, 아빠와 그 자녀 상호 간의 내적인 친밀성은 사라질 것이다.

이 관계의 내적 친밀성은 인격들을 일차적인 것으로, 이 관계를 이차적인 것으로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먼저 저기에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 예수가 있는 다음 양자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빠'와 '어린이' 예수는 서로 하나이다.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빠'가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는 '어린이'가 된다...

'아빠'가 지칭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의 자기이해를 형성하고 있음이 틀림없다.<sup>15)</sup>

몰트만에 의하면 예수의 아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로 드러내고, 예수는 자신을 그 아버지의 어린이, '아빠'로 경험한다. 하지만 몰트만은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이로 경험하는 예수의 자기이해가 자비로운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관해서는 더 이상 성찰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신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인간을 위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주로 물었던 반면에, 몰트만은 그의 고난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진지하게 물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안의 자발적 열정, 고난, 비극, 죽음을 보았다.<sup>16)</sup> 그리고 몰트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예수의 자기이해가 그를 뒤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도 진지하게 물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몰트만은 예수의 자기이해, 자기경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어

---

녀'라는 단어가 분명히 '어린' 자녀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고 '남녀'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이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드러내기에는 적절하지만, 종종 성인 어른과 대비되는 어린 자녀의 의미를 드러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른-어린 자식 간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이 문맥에서 나는 '어린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15) J. Moltmann, 김관진, 김명용 역, 예수 그리스도의 길, 대한기독교서회 1990, 210.

16) J. Moltmann, 김관진 역,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한국신학연구소 1979, 205쪽 이하를 참조하라.

면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뤼터(R. R. Ruether)도 가부장주의적 지배의 사회적 위계체제에서 아이들도 억압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이들이나 종들과 마찬가지로 부인들은 가부장주의적 계급에 의해 지배되고 소유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과 남성과의 관계는 남성과 신과의 관계와 같다. 신-남성-여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위계체제가 세워진다. 이러한 위계체제적 질서는 구약성서 속의 가부장주의적 율법구조 속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오직 남성인 가장(家長)에게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종들은 가부장에 대한 그들의 의무 관계와 재산 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언급된다.<sup>17)</sup>

이처럼 뤼터는 여성, 종들과 함께 고난받는 어린이들에게도 분명히 연대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하지만 뤼터는 여성들을 ‘피억압자 중의 피억압자’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대답하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을 여성화했다”고 말한다.<sup>18)</sup> 하지만 실상은 어린이들이야말로 ‘피억압자 중의 피억압자’가 아닐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큰 시련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다. 이처럼 뤼터는 여성억압의 현실에 대한 연민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그리고 여성 해방에만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여성보다 더 억압받는 어린이들을 주변화하거나 여성들의 억압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회적,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을 ‘여성화했다’기보다는 종종, 아니 훨씬 더 자주 ‘어린이화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그는 어린이의 이름으로 버림받는 자들을 대변하였고, 어린이를 버림받는 자들의 모델로 삼았다고 본다.

그리고 뤼터가 양성동체론적(兩性同體論的) 기독교론이나 양성신론(兩性神論)이 남성중심적 편향을 쉽게 가져다 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옳다. 그래서 뤼터는 ‘구원자’, ‘해방자’와 같은 인격적인 언어로부터 출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성을 육성해 주는 존재로서의 신적 존재’라는 비인격적 언어로부터 출발하여, 그러한 맥락 안에서도 양성신을 말하려고 한

17) R. R. Ruether, 안상임 역, *성차별과 神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62.

18) 같은 책, 149.

다.19) 러셀도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즉 러셀은 하나님에게 모든 생물학적, 문화적인 성차이를 초월하는 표징으로서 남성 대명사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적용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해방자’와 ‘구속자’라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20)

이렇게 함으로써, 튀터와 러셀은 양성신의 남성중심적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렇다면 튀터와 러셀은 파울 틸리히(P. Tillich)로부터 물려받은 존재론적 개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너머에 있는’(beyond God the Father)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했던 메리 델리(Mary Daly)처럼21) 남성에게 의해 지배되는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성적인 존재론적 개념을 다시금 도입하는가? 분명히 인간과 그리고 자연의 비밀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자면, 인격적이고 역사적인 하나님 표상들만으로는 실제로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하나님 표상들과 같이 인간중심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본다.22)

하지만 나는 종종 이런 비인격적, 중성적인 개념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하나님의 양성적 인격성을 포괄하면서 남성편향적 위험성을 견제할 수 있는 유용한 하나의 언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어린이’라는 언어이다. ‘어린이’라는 언어는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포괄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초월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성적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친구와 같은 사귀를 가능하게 하는 인격적 언어라고 본다.

물론 그리스도에게 이 단어를 부가하는 시도에는 그다지 어려움과 거부감이 따르진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이 단어를 적용하는 시도에는 상당한 비판과 심리적 거부감이 따를 것이다. 성서와 전통에서 하나님을 여성적, 모성적으로 표상하는 일이 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주의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권위있는 남성적 초월신으로 경배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하여, 하나님을 여성, 모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역겨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얼마나 많은가? 비단 남자들만이 아니라 오래 동안 가부장주의

19) 같은 책, 80.

20) L. M. Russel, 안상임 역, 女性解放의 神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124.

21) Mary Daly, Beyond God the Father: Toward a Philosophy of Women's Liberation, Boston 1973.

22) J. Moltmann,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Beiträge zur trinitarischen Theologie. München 1991, 14.

적인 문화에 길들여진 여자들에게조차도 그러한 일은 어렵고, 또 때로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남근숭배, 아니 남성의 저항, 아니 전통의 힘은 이토록 막강한 것인가?

하물며 유구한 성인중심적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어린이’ 이미지로 표상하는 시도는 그 얼마나 무모한 모험처럼 보일 것이며, 심지어는 ‘신성모독’과 같이 여겨지겠는가? 더욱이 성서와 전통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린이’ 이미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니 지금까지 이런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례한(?) 시도는 처음부터 거센 비판과 공격에 노출되기가 쉽다.

하지만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종교적 표상과 언어를 찾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성서에는 하나님을 ‘바위’나 ‘산성’이나 ‘피난처’니 하는 비인격적인, 아니 참으로 하잘 것없는 피조물의 은유로 부르는 것이 그 얼마나 익숙한가? 하나님을 이런 피조물로 부르는 것도 신성모독인가? 하물며 우리 시대에 ‘어린이’라는 인격적인 용어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표상하기가 중성적인 용어보다 그 얼마나 더 적절한가? 단지 “하나님에게 감히 그런 유치하고 파격적인(?) 용어를 갖다 붙이는 것이 구원자, 해방자 하나님에게 적절하겠는가?”라는 반문은 나올 듯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늘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분인가? 그분은 우리의 좋은 ‘친구’도 되지 않는가? 그분은 때로는 친구로서 우리의 구원자, 해방자가 되지 않는가? 아니 그분이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지 않더라도,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거나 그저 곁에 계셔서 함께 아파하시거나 괴로워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구원자와 해방자를 경험할 수 있지 않는가? 만약 우리가 어린이로서, 그리고 어린이처럼 친구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면, 이 때에는 차라리 어린이로, 어린이처럼 오시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아닐까? 어린이가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말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엄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수염난 남자 노인과 같으시고 힘센 왕과 같으신 분인가?

더욱이 낡은 종교적 언어와 표상이 우리 시대에 부적절하거나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언어로 대체하는 것은 더욱 더 필요하다. 비록 낡은 언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언어로 대체할 언어가 없거나 그렇게 하기에 무리가 따를 때는, 그 언어를 사용하되 그 의미

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봉건왕조 시대에 하나님을 ‘왕’, ‘임금’으로 부르고 표상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오늘 날 우리 시대에 왕조체제를 여전히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으며, 설령 아직도 ‘왕’이라고 불리는 군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고대 봉건시대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왕’으로 이해하기가 거의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보편적 통치자 언어인 ‘대통령’이나 ‘수상’ 등의 용어로 하나님을 부르기도 매우 어색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성서적이고 전통적인 언어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되,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게 좋다고 본다.

그리고 몰트만도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주로 ‘하나님의 지배, 통치’라는 신정체제적(神政體制的)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더 부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예수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안에서 소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에게서 발견되는 이런 그리스도교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성직주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생긴다.<sup>23)</sup> 만약 우리가 몰트만의 말대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면, 하나님이 어린이와 같은 우리에게 어린이의 모습으로 오시며, 우리를 어린이와 같은 친구의 사귄 안으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이 왜 어색하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성인적 이미지를 어린이 이미지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적 이미지를 친교적 이미지로 바꾸는 것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가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상관없이, 만약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로 경험했던 어린이와 같은 예수의 자기 경험을 재발견하고, 또 이 경험에 입각해서 ‘아들 예수를 마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어머니 얼굴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요 14:10-11, 17:21)의 어린이 얼굴까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이런 하나님 경험 이야말로 힘있는 자들, 남성들, 어른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힘없는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인류의 사귄을 탁월하게 증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3) J. Moltmann, 이신건 옮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대한기독교서회 1997, 34f.



## 4. 하나님을 ‘어린이’로서 말하기

나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이로서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려고 한다.

### 1) 실존론적 관점

만약 우리가 예수의 뜻에 따라 다같이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면, 그래서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앞에서 예수처럼 어린이와 같은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서 바라보아야 하겠는가?

가부장주의적 사회에서 하나님은 주로 ‘아버지’로 생각되었다. 그분은 곤경에 처한 자녀들을 권능의 팔로 건져 주시고, 적들에 에워싸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종종 대적자들 앞에서 승리를 안겨다 주시며, 원수를 물리치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시편 23)이다. 그분은 때로는 명령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며, 때로는 축복하시며, 때로는 지엄하시고, 때로는 인자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아빠’, 어머니와 같이 무한히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생각되었다. 그분은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해를 비취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고루 비를 내리시는 분(마 5:45)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미리 아시고 배려하시며, 우리의 염려까지 떠맡으시는 분(마 6:25-32)이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한 없이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다.

그러나 오늘 날에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당하고 억압당하는 현실을 자각한 여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얼굴, 즉 ‘어머니’를 보기 시작하였다. 특히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낳으시고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어머니로 이해되었다. 그분은 억눌린 자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너그러이 품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러나 어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가 된 어른, 더욱이 어른에 의해 학대받는 어린이는 하나님을 오로지 성인의 이미지로만 생각하여야 할까? 어린이에게는 어른이 가르쳐 준 하나님 외에도 스스로 발견하고 경

힘하고 부르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없을까? 어린이와 그리고 어린이처럼 된 우리는 때때로 친구와 같은 하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 하나님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린이가 되라고 요구하셨다면, 어린이와 그리고 어린이처럼 된 어른도 하나님에게 어린이와 같은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을까? 구원받기만을 바라지 않고 보호받기만을 바라지도 않는 어린이는 친구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요구할 수 없을까? 외로울 때에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지칠 때에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으며, 고통을 겪을 때에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즐거울 때에는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놀이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하나님을 요구할 수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이가 될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어린이가 된 어른도, 그리고 어린이도 하나님에게 어린이가 되실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신비에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어린이는 하나님이 친히 어린이의 눈높이로 내려오실 것을 기도하고, 애걸하고, 탄원하고, 심지어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하나님이 어린이의 눈높이로 내려오실 수가 없다면, 그런 하나님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위엄만을 부리는 낯선 하나님이 아닐까? 그리고 어린이 경험을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은 참으로 가난한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하나님이 뱃속에서 살해당하는 어린이를 어떻게 이해하실까? 그런 하나님이 온갖 학대와 냉대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그런 하나님이 어린이의 즐거움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시며, 또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실까? 또 때로는 어린이의 고통을 어떻게 달래시고, 또 그것을 고치실까?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만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친구, 어린이 친구로서도 말하고 생각하고 부르고 사귄 수 있고, 또 그래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은 어린이의 참 좋으신 친구다.<sup>24)</sup>

24) 몰트만에 의하면 하나님의 우정은 특히 자유로운 사람의 '기도' 가운데서 표현된다.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느낀다. 복음의 '신앙'에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각한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와 대화한다. 왜냐하면 기도는 인간의 자유의 가장 높은 단계이기 때문이다. 기도에서 표현되는 것은 서로 자유롭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이다. 하나님의 친구는 자유 가운데서 기도드리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친구됨을 신뢰한다. J. Moltmann, 朴鳳瓚 외 4인역, 『聖靈의 能力 안』

## 2) 그리스도론적 관점

하나님을 어린이로서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할 또 하나의 근거는 그리스도론에 있다. 만약 예수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일 뿐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아빠로 부를 수 있고, 또 그렇게 불러야 한다. 아니 때로는 비록 우리가 여성신학자들처럼 전통과 달리 하나님을 어머니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을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스승 예수, 이것만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유일한 유산인가? 일찍이 리츨(A. Ritschl)이나 하르낙(A. Harnack) 등과 같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리스도교 기원은 예수의 하나님 신앙에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론에는 있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成肉身) 사상을 무시하고서만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이다. 성육신 사상과 그리스도론이 없는 그리스도교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중심주의’로써 모든 종교를 평준화(?) 하려는 오늘 날의 ‘종교다원주의’의 시도와 유사하지 않는가? 만약 그리스도가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종교와 대화할 수가 있겠으며, 심지어 다른 종교로부터 배울 수가 있겠는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획일화가 아니면 혼합주의(Syncretism) 밖에 더 낳겠는가?

일찍이 베일리(D. M. Baillie)가 그의 책 ‘God was in Christ’(1962)에서 말하였듯이, 그리스도교가 전통적으로 고백해 온 성육신 사상은 그 어떤 합리화를 통해서도 쉽게 풀릴 수 없는 그리스도교의 신비와 파라독스(Paradox)를 의미한다. 성육신 사상은 “예수가 하나님과 같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와 같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론은 단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같았다”고 말해 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해 준다.<sup>25)</sup>

에 있는 敎會, 한국신학연구소 1980, 134f.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친구관계가 꼭 기도 가운데서만 가장 자유롭게 표현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도만이 아니라 시편과 기쁨, 예배와 찬양, 놀이와 축제 등에서도 어린이와 그리고 어린이가 된 어른은 하나님을 친구로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5) D. M. Baillie, 김용욱, 심재원, 김중기 역, 그리스도론, 대한기독교서회 1962, 78ff.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성육신이 라는 유일회적인 역사적 사건 이전과 이후에도, 영원토록 그의 아들을 출생시키신다. 제2위격(位格: Person)의 하나님이 남성적으로 로고스(Logos: 말씀 혹은 이성)라고 불리든, 여성적으로 소피아(Sophia: 지혜)라고 불리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성자(聖子)가 영원 전부터 성부(聖父)와 함께 있었다는 점이다. 아타나시우스(Athanasius)가 말한 것처럼, 만약 “한 때에 성자가 없었다”고 말한다면, “한 때에 생명의 샘이 말랐고, 지혜의 샘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성자는 생명과 지혜이기 때문이다.<sup>26)</sup>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4, 18)고 요한이 고백한 대로, 예수의 성품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성자 하나님 안에서도 인간으로 온 예수의 어린이다운 얼굴을 볼 수 있어

야 한다.<sup>27)</sup>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고쳐 말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신성모독이 아닐 것이다: “말씀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얼굴을 보니 아버지의 외아들, 어린이의 얼굴이요, 진실과 온유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하늘의 성자도 이미 어린이의 얼굴을 갖고 계셨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린이이다”는 명제는 성육신론적, 그리스도론적 명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어린이로 말하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과 필연성을

26) 같은 책, 175쪽에서 재인용함.

27) 요한복음 서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그리스어: 어린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 왔다고 선언한다.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혹은 위로부터) 태어날 필요에 대하여 언급한다. 공관복음은 어린이들을 이 새로운 탄생의 모델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은 실제 인물, 사랑하는 제자를 통하여 이 모델을 표현하려는 것 같다(Brown 1979). 이 사랑받는 제자는 가장 어렸던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가 돌아올 때 그가 살아 있을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보도가 있기 때문이다(21:22-23). 마지막 만찬 때에 그가 예수의 품에 있었다는 것은 어린 나이를 추측케 한다. 예수에 대한 그의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관계 위에 모델화되었다. 예수는 그의 아버지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비밀을 드러낸다(1:18).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품에서 사랑받는 제자는 그로부터 유다가 배반할 것을 듣고 이를 베드로에게 알린다.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907.

갖게 된 셈이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 현실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 3) 삼위일체론적 관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이로서 말하고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관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만약 우리가 카파도키아 교부들처럼,<sup>28)</sup> 또 그를 따르는 몰트만처럼<sup>29)</sup> 삼위 하나님 전체가 각 위격 속에 내재(內在)하고 순환(循環)하며 침투(浸透)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성부와 성령에게서도 어린이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성부는 높은 보좌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시고, 성자는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어 오셨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다 드러내지 못한다. 신약성서는 아들 예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아들 예수, 아들에게 주어진 성령에 관해 말한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신약성서는 가르친다.<sup>30)</sup>

삼위일체의 각 위격은 자기 안에서만 고독하게 존재하지 않고, 서로 안에 거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를 영화롭게 한다. 삼위 하나님의 상호순환과 상호침투는 공동체적인 하나님(K. Barth), 사회적 삼위일체(J. Moltmann)의 신비를 표현한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령은 성자의 속성을 공유(共有)한다. 즉 성자는 자신의 속성을 다른 위격들에게도 침투시켜 서로 사랑의 사귀음을 이룬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도 성자가 갖는 어린이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예수가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마 18:5),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마 18:5, 막 9:37)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 아이를 영접한 어린 아이와 같은 예수에게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이와 같은 모습, 어린이의 얼굴을 볼 수 있어

28) 성 바질(St. Basil)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같은 종류의 모든 다른 것들과 같은 모양으로 신성화하고 고무하고 위로하고 감화하며… 또한 이와 꼭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성도들 속에서도 동등하게 이런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D. M. Baillie, 앞의 책 174쪽에서 재인용함.

29) J. Moltmann, 김균진 역, 三位一體와 하나님의 나라,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210f.

30) D. M. Baillie, 앞의 책, 180.

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는 어린 아들로 말미암아 그 온유하고 진실한 속성을 나누어 가지신다면, 어른의 얼굴을 지니시는 아버지도 영원히 출생하는 어린 아들로 말미암아 항상 어린이의 얼굴도 지니게 되지 않을까? 이것은 그 얼마나 신비한 연합과 아름다운 사귄인가?

## 나가는 말

불교와 기독교는 인간이 어린이로서, 혹은 어린이와 같이 됨으로써만 진정한 구도의 길을 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데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이 점은 탐욕과 억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21세기를 바라보면서 길과 방향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현대인에게 종교가 가르쳐야 할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종교는 그 진정한 본질에서 “어린이를 학대하지 말자”거나 “어린이를 사랑하자”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모두 어린이가 되어야만 비로소 부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이 땅에 진정한 극락,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인류의 대중교는 본질적으로 어린이, 어린이의 이미지를 종교적 인식과 종교적 심성, 일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고 권장한다. 바로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 점에서도 우리는 종교의 위대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바로 이 점에서 종교는 어린이의 가장 큰 후원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종교의 이러한 지평을 자신 안으로 확대하도록 더욱 더 힘써야 할 것이다.